

의학을 쉽게 푸는 모임

홍 사 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사민아, 넌 그래서 의학을 쉽게 풀었니?"

글쎄요... 과연 제가 의학을 쉽게 풀 수 있었을까요? 의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학문이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의학을 쉽게 푸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고, 사실 뭐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답니다. 그렇다면 의학을 쉽게 푸는 모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희 의습이들(의학을 쉽게 푸는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은 의학을 '쉽게' 푸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함께' 풀어 가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의과대학이라는 곳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후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의학지식을 얻었고, 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공부한 것은 '지식으로서의 의학'이었을 뿐, '학문으로서의 의학'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

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대개 매우 의욕적인 사람들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열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열정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의 발걸음에서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난 열정이 또 다음 발걸음을 옮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생겨난 열정 하나 하나가 모여 마침내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 의욕적인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의대생들의 모습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든 열정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주저앉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수하고 의욕에 넘치는 학생들을 다른 어떤 곳보다도 뒤떨어진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학생들을 의욕적으로 만들어 주는 교육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지를 꺾고 수동적으로 만들며 욕구 불만 상태로 몰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란 우선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과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욕구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직업 교육이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암기하기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도제식 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욕구 불만으로 저항하다가 점차 어떻게 욕구를 끌어내는 지 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학을 쉽게 푸는 모임(의쉽모)은 1980년대 후반, 이러한 의과대학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몇몇 선배님들이 뜻을 모음으로써 생겨났습니다. 의쉽모에서 강조되는 이념은 '공개성과 자율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공개성',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자율성'. 이것이 우리 의쉽모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장학', '면역학', '신경내과학', '신장학', '병리학' 등의 우리말 교재를 만들

고, 정기적으로 선후배가 만나 세미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의쉽모의 모든 서적에는 앞에 '학생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의쉽모의 책들은 단지 쉽게 쓰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쉬우면서도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우리들 자신과 동료 학우들을 위한 고민의 산물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 세미나는 의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세미나들과 달리 서로 간의 거침없는 질문과 답변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기 세미나는 재학생만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후배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의쉽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동료 학우들로부터 신선한 자극을 받으며 학문에의 열의를 불태우곤 합니다.

배우고자 함은 가장 인간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배움은 기쁨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배움을 강요받는 교육은 우리를 넓고 심오한 학문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쉽이들은 배우는 기쁨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학을 쉽게 푸는 모임은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991년 · 학생을 위한 심장학 1판
· 학생을 위한 면역학 1판
· 학생회 주최 간담회(제목: 교수님과 함께 하는 의학교육의 방향성)에서 주제 발제

- | | | |
|-------|--|---|
| 199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대학 교육 계획 위원회 추진 '의과대학 학습 목표집' 제작에 참가 · 학생을 위한 신경내과 1판 · 학생을 위한 면역학 2판 · 학생을 위한 심장학 2판 · 학생을 위한 신장학 1판 · 한국의학교육학회 제8차 학술대회 '학생에 의한 학습부교재 개발 사례 보고'에 일반연제로 학생으로서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일하게 참가하여 발표 · 학생을 위한 신경내과 2판 · 학생을 위한 심장학 3판 · 학생을 위한 병리학 1판 · 학생을 위한 심장학 4판, 도서출판 예인 · 학생을 위한 신장학 2판, 대신서원 · 학생을 위한 병리학 2판, 도서출판 예당 |
| | 1993년 | |
| | 1995년 | |
| | 1996년 | |
| | 1997년 | |
| | 2000년 | |